



강진 김명일



고흥 한운섭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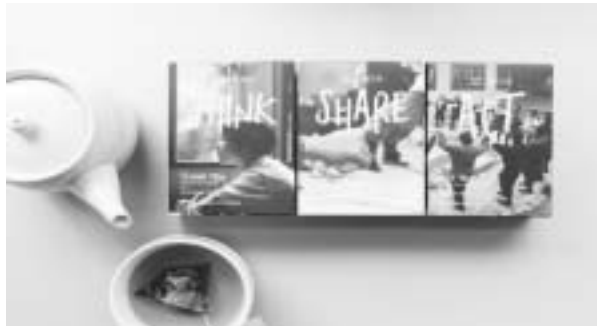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보성차’ 품질과 브랜드 가치 세계에서 인정받다

내달부터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공급



보성군은 보성차생산자조합에서 생산된 차를 오는 6월초부터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이하 유네스코 아페이유)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네스코로 공급되는 보성차는 보성차생산자조합에서 개발한 블렌딩차(tea)로 국제 행사나 컨벤션 등에서 참석자 선물용이나 웰

컴퓨터로 쓰이게 된다.

보성의 차가 유네스코 대표 차로 선정된 데에는 우수한 품질과 차의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민과 건강하고 밝게 소통하자는 보성차의 브랜드 가치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인류 평화의 가치와 일맥상통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성군은 유네스코 아페이유의 가치인 생각하고(Think), 공유하여(Share), 실천한다(Act)에 기반을 두고 새롭게 블렌딩차 3종 세트를 개발했다.

녹차를 베이스로 해 머리를 맑게 해주는 생각차(Think tea), 카페인이 없어 남녀노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허브티 공유차(Share tea), 홍차를 베이스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든 실천차(Act tea)를 만들어 차를 나누며 함께하고 서로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아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유네스코 공식차로 보성차가 선정되어 공익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 “세계 곳곳에서 보성의 차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차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물론, 건강하게,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 차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네스코 아페이유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의 산하 기관으로 세계평화와 세계 시민교육을 가치로 내걸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드림스타트, 온가족 함께하는 놀이체험활동 실시

평소 체험기회 부족한 저연령 아동 및 가족간 화합시간 마련



고흥군은 지난 24일부터 25일, 2일에 걸쳐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 드림스타트 아동 놀이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활동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평소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용인시에서 다양한 체험과 가족활동을 통하여 평소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캠프 첫째 날인 24일에는 용인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놀이기구 체험과 장미축제 관람을, 25일에는 한국민속촌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양육자는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동은 가족과의 많은 대화로 가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고흥=한운섭 기자

광양시, 대한민국 최고 명품 ‘광양매실’ 본격 출하

광양시는 지난 27일 광양동부농협 옥곡지점에서 광양매실 출하식을 갖고 2019년산 광양매실 시장 출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양매실 출하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 농협광양시지부장 등 산지유류 관계자들이 참여해 매실 수매 및 선별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양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최적의 매실 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매실 주산지로, 광양매실은 타지역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하며, 색깔이 선명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리적표시제 등록(제36호), 매실산업특구로 지정받은 광양매실은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4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매실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는 광양매실의 경쟁력을 더욱 더 높이고 명품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공동선별시설 및 정비 지원,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실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집중된 수도권 지하철, 버스터미널, 승강장, 아파트단지, 육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은 물론 소비자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30일 서울시 서대문구청에서 광양매실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매실 직거래장터에서는 생매실, 매실가공식품 등 광양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매실청 담그기, 장아찌 만들기,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소비자 체험을 할 수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모집

순천시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50명을 오는 6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자는 △일자리, 주거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돌봄, 교육 △일과 가정, 다문화, 가족친화 △

고령사회 중 주요 관심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관심분야 등을 심사해 구성할 예정이며, 참여단은 분야별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분기별 정례회를 통해 시민주도형 인구정책 발굴과 인구문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hyeongk@korea.kr), 팩스(061-749-4619),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1-749-407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북경세계원에박람회 대한민국 대표정원 조성

국립남도국악단 사물놀이 등 대한민국의 날 행사 열려



순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중국 북경 세계원에박람회에 한국정원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한국정원은 ‘한국정원, 세계의 평화와 교류를 희망한다’는 주제로 조성돼 25일 준공식을 가졌다.

한국정원은 한옥, 화계, 연못, 담장으로 구성됐다. 정원 중앙에 한국 전통정원의 상징물로 대표되는 누각을 표현하고자 옛 순천부읍성에

있던 연자루를 축소해 아름답게 축조했다.

또, 조경은 물이 흘러 연못에 이르러 하나가 되듯 인류가 하나되어 평화와 교류를 희망하는 의미를 아름다운 순천민의 아름다운 S자 수로와 연못으로 나타냈다.

한국정원에 식재한 식물은 한국의 사계절 특성을 살린 다양한 꽃들로 구성됐다. 봄에는 복련꽃, 살구꽃, 수수꽃대리, 작약 등이 피고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순천을 대표하는 갈대, 억새, 사초류와 겨울에는 한국의 기상을 알리는 기품있는 푸른 소나무 등으로 식재했다.

이날 준공식은 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의 취타대 연주와 수문장 교대식에 이어 한국대표 음식인 비빔밥, 녹차, 송이차 등 시식 행사로 한국의 맛과 멋을 알렸다.

준공식에 이어 대한민국의 날 행사에는 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 뿐 아니라 북경 교민을 초청해 국립남도국악단의 사물놀이 및 부채춤 공연과 비보이 탈춤, 드로잉쇼, K-POP 최고 인기 그룹(스누퍼, 내온원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정원 입구에는 한국을 알리는 LED 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홍보관을 설치해 한복입어보기, 청사초롱 만들기, 전통부채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허석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국정원을 조성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정원 도시로 세계에서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세계 여러나라와 문화, 정원산업 교류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군, 논 타작물 재배용 농기계 및 무인기(드론) 연· 전시회

농기계 조작법 등 교육

영광군은 지난 23일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참석 100명)을 대상으로 논 타작물 재배용 농기계 및 무인기(드론) 연· 전시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업기술센터는 콩, 옥수수, 총채버 등 논에 버릴 대체한 작목과

관련한 농기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했으며 해당 농기계 조작법과 안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 농업에 부각되고 있는 무인기(드론)의 활용방법과 작물보호제 방제, 종자 파종, 시비작업 등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연시회를 통해 현장감을 한층 높여 무인기(드

론)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교육은 연· 전시회를 병행하여 새로운 농법을 알리고 새로 개발된 농기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올바른 조작법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현장교육의 장이 되었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총대 사안 관계기관 권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권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장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